

신행수첩

건강한 청소년 건강한 사회 청교연 윤리회복대회

올바른 사회환경을 조성하여 보다 밝고 건강한 청소년문화를 새우자는 청소년들이 한자리에 모인다.

(사)대한불교청소년교과연합회(회장 박현성)는 오는 18일, 29일 각각 대전 보문문화회관과 온양교육회관에서 「청소년 윤리회복 실천대회」를 개최한다.

이날 행사에서 초·중·고생들은 건전한 생활을 통해 자질을 함양하고 윤리관을 재정립, 도덕성 회복에 앞장서자는 '우리의 다짐' 시간을 갖는다.

이어 열리는 중창, 현대무용과 사물놀이, 가요경연, 고전무용 등의 장기자랑은 행사 분위기를 한껏 고조시킬 것이다. 이번 실천대회는 자신을 돌아보며 새로운 진취적 내일을 마련한다는 숭고한 의의도 담고 있어 꿈과 웃음을 마음껏 펼치고 싶은 청소년의 많은 참여를 권한다. (02) 735-8165



○ 청소년 포교 요일지 학생 신홍시는 수련회, 강의 등이 끊이지 않는다.

양심수에 따뜻한 겨울을 인권위, 성금·성품모금

맑고 깨끗한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진보의 그날을 위해 고군분투하다 여름이면 화창지욱, 겨울이면 팔한지욱 같은 감옥에서 수행생활을 하는 양심수들.

그들의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 불교인권위원회가 발벗고 나섰다.

인권위는 양심수들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한 후원금을 모으고 있는 것이다.

따뜻한 털양말 한 켤레라도 좋고, 속내의 한벌도 좋다. 천 원도 좋고 만 원도 좋다. 양심수들의 따뜻한 겨울나기에 불자들의 동참을 기대해 본다. (02)745-1852

어린이 마음 부처님 마음 제18차 어린이지도자 연수

초롱초롱한 어린이의 눈망울과 꾸민없는 마음은 언제나 늘 부처님의 모습이다. 이런 어린이들의 모습을 만나는 것은 그 자체가 불법수행이 아니고 무엇이라

94년의 끝에서 만나 95년 새해의 문을 활짝 열 어린이지도자 연수회가 신라 천년의 고도, 경주에 모인다.

대한불교어린이지도자 연합회(총재 조경관)가 주최하는 제18차 전국어린이지도자연수회가 94년 12월 31일 오후4시부터 95년 1월 2일까지 2박3일

동안 경주월드에서 개최된다.

'희망찬 미래불교, 어린이 가슴에'를 주제로 한 이번 연수회는 어린이 마음이 부처님 마음임을 볼 수 있는 지도자 양성 자리다.

서로 어울려 배우는 민요와 단가, 전래동요, 전래놀이 등 기타 프로그램은 훌륭한 교사가 된다는 자부심을 한껏 드높여 줄 것이다.(051)808-4569, 4570

외국인 근로자에 용기를 18일 자비의 집 송년법회

우리들의 가슴에는 항상 불성이 살아 숨쉬고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잊고 산다.

불성은 우리 생명같은 생명의 자비의 씨앗이다. 부처님은 자비의 손으로 조건없이 온 세상을 어루만져 주시며 중생들의 고통을 헤아려 준다.

이와같은 부처님의 따뜻한 법연이 국내에 취업중인 외국인 불자들에게 삶의 용기와 희망을 주고 외국인 불자와 국내 불자들의 돈독한 형제애를 맺게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경북권 자비의 집(회장 동광)은 오는 18일 정포포교원에 서 한해를 보내기에 앞서 '외국근로자와 함께하는 송년법회'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에는 그동안 생활 습관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각지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을 초청, 전통음식 만들기·장기자랑 및 각나라의 전통음악이 한데 어우러지게 된다.

자비의 집은 외국인근로자들을 위해 직장앞선과 생활개선, 우리말을 가르치고 있다.

부처님 품에서 해방감 만끽

우리는 선우, 화성 신홍사서 고교생 수련회

늘상 대입시험이라는 부담을 안고 생활하는 고교생들에게 찾아온 겨울방학, 그나마 이 신나는 방학마저도 며칠은 보충수업으로 매워진다. 그렇지만 이런저런 모든 것에서 벗어나 또래와 단 하루 밤만이라도 같이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즐거울까!

바로 이런 꿈같은 고교생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다. 우리는 선우(공동대표 박광서·남지심)는 95년 1월10일부터 12일까지 3일동안 화성 신홍사에서 고등학교 동계수련회를 개최한다.

이번 수련회는 다양한 일정으로 꾸며져 있다. 이종 3일간의 새벽과 저녁예불, 둘째날 밤의 1080배는 부처님 앞에서 새해의 계획과 신심을 다지는 계기가 될 것이다.

환경문제에 대한 강의와 심성훈련 등 교양·사회활동 프로그램은 올바른 민족관과 불교적인 바른 삶의 가치관을 찾으려는 참가 고교생들의 진지함으로 채워진다. 밤새 쌓인 눈위를 뒹굴며 서로의 우정을 나누는 '만남의 시간'과 '공동체 놀이'는 공동생활을 통한 진정한 삶의 의미를 느끼게 해주는 소중한 기억으로 자리잡을 것이다. (02)952-0666

어린이 연극·시낭송 25일,이리 관음사

고사리 같은 손을 모아 합창하는 어린이의 마음은 그대로 부처님의 마음일 것이다. 그 마음으로 한바탕 잔치를 펼친다면 어떤 모습일까.

이리 관음사(주지 월우) 어린이회가 학부모를 초청하여 '어린이 자비의 발'을 마련한다. 25일 오후 7시 법당에서 열리는 이번 행사는 연극(황금빛 사슴)을 비롯 찬불가 합창, 에어로빅, 시낭송 등이 선보인다.

50여명의 어린이회원 모두가 두달간 하루에 두시간씩 연습에 몰두했다. 처음으로 차루는 행사에서 애써함도 예상되지만 부처님같은 고사리들의 마음을 엿볼 수 있을 것이다. (0653)54-1578

뗏목보다 더 진한 정 24일, 후원자와 만남의 날

세상 부모들은 어린이들이 어른보다 더욱 진한 사람으로 자라나, 지금보다 더욱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 수 있기를 기대한다.

부처님의 자비와 자혜의 가르침은 순수한 동심을 광명으로 채워줄 수 있는 최고의 방편임에 분명하다.

강릉자비원(원장 부등)은 오는 24일 자비와 원생과 그간 도와준 후원회원과의 '만남의 광장'을 마련한다.

자비원 소극장에서 열리는 이번 행사는 1시부터 18시까지 58명의 원생과 전국 각지에서 모인 후원회원과의 뗏목보다 진한 정을 확인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 (0391)42-3555

자비의 쌀을 이웃에게 마하선원 재활원무원

선인들은 "어려운 이웃을 보살피는 것은 곧 자기 자신을 진심으로 보살피는 일이다"고 했다. 우리가 살아야 할 사회는 더불어 사는 사회임을 강조하는 것이다. 우리 주위에는 어려운 이가 없는지 돌아볼 때가 되었다.

서울 상계동 마하선원(주지 종월)도 25일 노년구 중계동에 있는 천재재활원을 찾아 지적 장애인들을 위한 할 예정이다. 이날 재활원 방문은 일요일회 후 신도들이 모두 동참하기로 했다. 마하선원의 이웃돕기행사는 백미 1말이면 누구나 동참할 수 있다. 작은 정성일지라도 천재재활원의 장애인들에게는 따뜻한 겨울나기가 될 것이다. (02)952-0666

어린이 연극·시낭송 25일,이리 관음사

고사리 같은 손을 모아 합창하는 어린이의 마음은 그대로 부처님의 마음일 것이다. 그 마음으로 한바탕 잔치를 펼친다면 어떤 모습일까.

이리 관음사(주지 월우) 어린이회가 학부모를 초청하여 '어린이 자비의 발'을 마련한다. 25일 오후 7시 법당에서 열리는 이번 행사는 연극(황금빛 사슴)을 비롯 찬불가 합창, 에어로빅, 시낭송 등이 선보인다.

50여명의 어린이회원 모두가 두달간 하루에 두시간씩 연습에 몰두했다. 처음으로 차루는 행사에서 애써함도 예상되지만 부처님같은 고사리들의 마음을 엿볼 수 있을 것이다. (0653)54-1578

나의 수행일기



리 제 재
〈동수원 중학교교장〉

나의 수행생활은 가족을 중심으로 하여, 청소년, 학생 불자와 더불어 이루어졌으니, 수원불교 학생회, 수원불교 청년회, 수원시 신도회의 장님이 그것이다.

수원지역에 최초로 창립된 수원불교학생회(용주사 수원포교당)가 올해 25회 수료생 46명을 배출함으로써 총 777명이 수원을 중심으로 전국에 퍼져 상구보리 화화중생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흘러가는 세월따라 초창기 학생회 출신 불자가 주축이 되어 창립한 수원불교청년회도 20명을 맞이하고 있다. 이제 그들도 40 불혹의 나이가 되어 가장으로서, 사회 각계각층의 지도자로서 불법을 널리 퍼고자 활약하고 있음을 볼 때 마음 든든하다. 이와같이 청소년·학생 불자가 장년이 된



제자들의 포교활동 볼때 마음 든든

1992년 2월 24일, 다른 종교단체와의 관계에서 필연적으로 대한불교 조계종 수원시 신도회의 창립을 보게되어, 오랜 수행생활을 한 이들과 함께 현대불교의 생활화를 위해 미력하나마 진력하고 있다.

정기적으로 매월 둘째 일요일은 가족과 같이 효심(孝心)의 본향 용주사를 참배하고 법회를 보면서 신심을 굳히고 있으며, 그밖에도 학술발표회, 전시회, 놀이마당등도 열어 생활감 넘치는 참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한편, 인연있는 도량을 찾아 옛스님을 찾아뵙고 등산도 하면서 마음을 닦고 있다.

필자는 공립학교에 봉직하고 있으므로 특별활동에 불교반을 두어, 먼저 지도교사를 양성하고, 학생들에게는 중립학교 교재를 나누어 주기도 하고 있다. 이에 다른 교사나 학생들의 관심이 커지고 불교에 대한 그들의 인식이 달라지고 있음에 보람을 느끼게 된다.

가정에서는 가족과 함께 하루하루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고 있다. 서재에는 <교과대장경> 영인본 48권, <한글 대장경> 100권과 함께 제일 좋은 자리에 불상(佛相)을 모셔 아침 저녁으로 예불을 올리며 출·입시에는 꼭 합장 예배하고 있다. 아침 일찍 일어나 대문을 열고 정리한 다

권하고 있다. 필자는 자은 성우 대웅사(慈雲寺大雄師) 스님으로부터 70년 4월 10일 5계와 무염(無染)이라는 색이름(법명)을 지어 받았다. 호계 힘이 들어있는 호계할 포지에는 '세상에 살피 허공과 같이 하며, 연꽃과 같이 물에 물들지 아니하고, 그 마음을 깨끗이 해서 저 언덕으로 건너가라'고 이르셨다.

세상이란 번뇌망상에 꼭 차있거 마련이며 흔탁한 현실을 의연할 수도 없으니 그 속에서 살아가되 저 허공과 같이 살라는 말이다. 허공은 한 물건도 '소유하지 않음'을 말하니 불의나 비리에 타협하지 말라는 뜻이며, 동시에 티끌 하나도 버리지 아니하니 '일체를 다 포용'하는 사람이 되라는 뜻이다.

연꽃이 진흙 속에서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 주듯, 진흙이 묻지도 않고, 물방울도 묻지 않음과 같이, 우리도 세상에 살피 현실에 물들지 않는 깨끗한 생활을 해야한다. 더럽다고 현실을 도피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고 현실속에서 연꽃과 같이 살아가야 한다.

이와같이 마음을 깨끗이 함으로써 현상의 이 언덕(此案)에서 이상적인 저 언덕(彼案)으로 건너가게 되는 것이다. 필자의 좌우명으로 이와같이 살려고 수행에 힘쓰고 있다.

생활 속의 불교 ⑨

“노비문서를 애지중지하는 사람들”

업이라는 것은 머리카락 한 울금의 어긋남도 없다. 수억 겁 과거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자기가 지은 대로, 선하게 지었으면 선업으로, 악하게 지었으면 악업으로 그 과보를 받는다.

거기엔 예외가 없다. 선·악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둘도 없는 윤회의 굴레에서 벗어 나지 못한다는 점에서는 선업과 악업에 아무런 차이가 없다. 차이가 있다면 한 경우는 나쁜 주인을 만나 갖은 고생을 다 하게 되는 노예인 반면 다른 경우는 좋은 주인을 만나 편하게 살아가는 노예인 점이 다를 뿐이다. 그러나 둘 다 노예이기는 마찬가지다.

이렇게 과거로부터 지고 나온 업을 채곡채곡 정어 놓는다면 비유컨대 달걀 같 만큼 그렇게 많고 무거운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내려 놓으려 하지 않고 짊어진 채로 살고 있으니 수억 겁 두고두고 쌓인 노비문서를 짓눌러 사는 꼴이나 같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은 제 노비문서를 애지중지하고 있다. 그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내려 놓으려 하지 않는다.

그것은 감옥에 갇힌 꼴이요, 벼랑 끝에 매달린 꼴이나 다름 없다.

이제 노비문서를 불에 태우고 자유를 얻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 방법이 불법 속에 있다.

한건의 누수 사고도 없었습니다

- 86년 3월 설립
- 대형 건설업체의 취약부반인
- 고질적인 방수 하자 보수공사 성공리 완료
- 설립 7년 민인 93년 연간 약 46억의 공사 수주
- 신방수공법, 특수도장 부문 등 각 건설업체로부터 각광
- 100% 직영 처리
- 기술 및 안전에 관한 철저한 교육 실시
- 회사 설립 이후 철저한 무사고 시공!

목표는 국내 최고!!

성풍산업 주식회사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824번지의 29
 전화 553-2441~3, 553-7768-9
 팩스 553-2449